
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
반부패 시책 사례 공유 · 확산

2025. 6.

[제출기관명 : 기술보증기금]

기 술 보 증 기 금

1 추진배경 및 필요성

□ **[부패취약분야]** 공무상 출장시 취득한 항공마일리지(이하 “공적 항공마일리지”) 및 출장여비(운임) 부정수급 사례 등 출장예산 집행 관련 부패 취약분야 발굴(’23년)

① **[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리 미흡]** 활용 목적이 공무상 여행으로 제한되어 사용되지 못하고 소멸되거나, 마일리지 보유 직원의 퇴직으로 인한 개인 귀속 및 사적 이용 가능성 존재

☞ 공적 자산의 소멸 예방과 사적 귀속·이용에 따른 부패 방지를 위해 제도적 개선 필요

* (타기관 언론보도) “OO 퇴직자, 1661만 항공 마일리지 ‘꿀꺽’”(23.10.22., 서울경제)

② **[출장비 부정수급]** 승차권을 예매한 뒤 영수증만 출력하고, 취소하는 수법으로 출장비를 수수하는 등 여비 증빙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부정수급 사례 언론보도

☞ 출장비 횡령 부패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

* (타기관 언론보도) “간 크게 KTX 취소 영수증으로 759만 원 ‘꿀꺽’...”(23.1.30., 노컷뉴스)

2 주요 추진내용

① **[공적 항공마일리지 구매제도 신설]** 절차 및 전산을 신설하여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을 활성화하여 마일리지 소멸 및 사적 귀속·이용 위험을 사전 예방

① (절차 신설)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구매 절차, 정당한 교환가치(가격) 기준 등 마련

- 임직원은 보유한 업무용 마일리지를 소관부서의 승인 후 구매하여 사적 이용 가능

- 마일리지 교환가치는 기관 사회공헌기금으로의 출연을 통해 기부금 등으로 처리

② (전산 구축) 마일리지 구매 시스템을 통해 이용 편의성 및 관리 투명성 제고

- 구매 시스템의 전산화 마련으로 구매 의사가 있는 수요자의 상시 접근성 향상

- 마일리지 구매 이력의 전산화로 실시간 기록·관리 가능해져 투명성 제고

【공적마일리지 구매제도 개요】



【공적마일리지 구매 전산 캡처】

화면 캡처는 '항공마일리지 구매 / 소멸 신청' 웹페이지를 보여줍니다. 상단에는 '항공마일리지 구매 / 소멸 신청 [HPYEC501P3]'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. 페이지에는 '직원정보', '구분' (구매, 소멸), '항공사' (대한항공(스카이텔)), '차감 마일리지' (2,500 / 5,331), '증빙첨부' 등의 입력 필드가 있습니다. 오른쪽에는 '신청일자' (2025-05-19)와 '저장', '승인요청', '닫기' 버튼이 있습니다. 하단에는 '※승인요청 시 담당자가 확인 후 입금계좌 등 이후 절차 별도 안내예정'이라는 안내문이 있습니다.

② **[출장비 진위검증 강화]** 지출결의 시 점검을 강화하도록 프로세스를 개선하고, 승차권 진위확인시스템을 도입하여 부당한 출장비(운임) 수급을 원천 차단

① **(점검 강화)** 운임 지급시 **출장내역 확인**, 증빙 첨부 및 실제 이동수단 탑승 여부 검증이 선행되어야 지출결의 할 수 있도록 지침 및 전산 시스템 개선

- 특히, 모든 여비의 지출결의가 해당 임직원의 근태와 연계되도록 하여 중복 지급을 방지하는 등 시스템화하여 기존보다 필터링을 강화

* 항공의 경우 출장 종료일 이후 발권/탑승완료 내역 조회자료를 제출하며, 자가용은 여행거리(카카오맵), 통행료 영수증 등 증빙 누락을 방지하고, 연료비를 자동 산출

② **(승차권 진위확인시스템 도입)** 국내출장 시 이용이 많은 철도(KTX, SRT 등)는 승차권의 실제 탑승 여부를 확인하여 지출결의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

* 승차일 이후 승차권 번호(16자리)를 입력·조회하여 출발·목적지, 승차권 사용 여부 등 확인

구 분	변경 前	변경 後
근태 확인	출장일 근태 정보를 직접 입력	지출결의 시스템 내 결재된 근태 정보 자동 연계
	철도 지출 증빙(운임영수증) 첨부	승차권 번호(16자리) 입력·조회로 실제 이용 추가 확인
운임 확인	항공 지출 증빙(운임영수증) 첨부	출장 종료일 이후 발권/탑승 완료 조회내역 제출
	자가용 서면 양식에 연료비 산정 근거 (증빙 포함) 등 임의작성 후 제출	여행거리(카카오맵), 유가(오피넷) 데이터 연계로 연료비 산출 자동화 및 증빙자료 첨부 전산화

3 추진과정 중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

① **[공적 항공마일리지 구매제도 신설]** 공적 마일리지 구매제도 시행 초기, 내부 직원의 제도 인식이 다소 저조

⇒ **극복방안** (제도 홍보 활성화) 반부패 제도개선 관련한 내부 공모전 개최 시, 해당 제도가 우수작으로 선정되어 ‘윤리 게시판’ 및 ‘청렴이메일’ 발송 등으로 쏠 임직원 전파

② **[출장비 진위검증 강화]** 출장 운임과 관련하여 실제 이동수단 이용 여부 등을 비롯한 전반적인 점검과정의 신뢰성 및 효율성이 보장되는 것이 제도개선의 관건

⇒ **극복방안1** (점검시스템 신설) 출장 운임 지급을 위한 별도의 전산시스템을 신설하여 점검자가 근태 확인, 증빙자료 입력·진위확인 등 일련의 절차를 수행하도록 통제

⇒ **극복방안2** (공공데이터포털 활용) 한국철도공사, (주)에스알 등이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제공하는 ‘승차권 데이터 확인 서비스’ 등을 활용하여 진위확인시스템 구축

* 공공데이터포털(www.data.go.kr)에서 승차권 상태를 개방형 API방식으로 제공받아 각 기관에서 필요한 형태로 가공하여 사용 가능

4 주요 추진성과

□ **[추진성과]** 공무상 출장 예산과 연관된 부패 발생 사각지대 해소로 투명성 제고

① **[공적 항공마일리지 구매제도 신설]** 제도 도입 후 마일리지 구매* 활성화를 통해 공적 자산의 소멸 방지, 부당한 사적 이용 사전 예방

* 현재까지 누적 약 64만 마일리지 구매, 제도 시행년도 比 차년도 구매율 약 3.8배 상승

- 마일리지 교환대가만큼 기관 사회공헌기금으로의 출연을 통해 기부금 등 목적 활용

② **[출장비 진위검증 강화]** 시스템 구축으로 검증의 효과성 및 출장비 지출결의의 편의성이 향상되고, 종국적으로 여비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

- 출장비 부정수급 등 '예산의 목적 외 사용'으로 인한 행동강령 위반사건 "ZERO"

☞ 공무상 출장 예산과 관련된 부패 가능성 원천 차단 노력의 결과,
 '23년 청렴도 평가에서 '예산 부당집행'에 대한 내부체감도는 85.1점으로,
 타 기관 대비 우수한 수준 달성

* 동일유형(공직Ⅱ) 평균比 7.7점↑, 전체기관 평균比 9.3점↑

5 사례선정 사유

□ **[선정사유]** 출장비와 연관한 공적 자산의 투명한 관리체계 구축 사례로서, 공적 예산 운영의 신뢰성을 대내외로부터 공감받을 수 있는 점 감안하여 선정

① **[공적 항공마일리지 구매제도 신설]** 공적 마일리지 사용율이 저조한 공직유관단체에서 제도 도입 시, 업무 목적 외 합리적 사용이 가능해지는 등 회색지대 축소와 공적 자산의 사적 이용 관련한 부패위험 예방에 도움 될 것으로 예상

② **[출장비 진위검증 강화]** 業 특성상 공무 출장이 빈번한 기관에서 근태 내역과 연계된 지출화면 구축 및 서면 자료와 전산 데이터 간 크로스체크 시스템을 통해 부정수급 원천 차단에 기여 예상

√ 해당 사례가 '22년도~'24년도 권익위에 제출한 '부패취약분야 개선 과제'에 해당 여부	예 ☒	아니오 ☐
√ 과제 제출 년도 * ('22년도) 청렴노력도 평가 ⑤번, ('23년도) 청렴노력도 평가 ②번, ('24년도) 청렴노력도 평가 ②번	'22년 ☐	'23년 ☒
√ '22년도~'24년도 미평가기관에 해당(자율과제 제출)	예 ☐	아니오 ☒